

[협회소식]

◆ ‘제9회 APSF 정기총회’ 개최

APSF 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아시아지역 물류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sia Pallet System Federation, APSF)의 총회가 지난 9월 25일 태국 방콕 Bitech Bangna 전시장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제9회 APSF 정기총회는 태국화주협회(Thai national Shippers' Council)가 주관했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8개국에서 55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각국의 대표가 국가경제와 파렛트 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한 후 APSF를 통한 상호 비즈니스 창출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APSF 제4대 회장 이었던 일본의 Sumihiro Yamajaki 회장의 임기 만료로 명예 회장으로 변경 되었으며, 제5대 회장으로 중국의 Wu Qingyi (Pallet professional Committee) 회장(중국구매물자협회 부회장, 북경대학 교수)을 선임했다. 그리고 차기 10회 정기총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신임 APSF Wu Qingyi (Pallet professional Committee)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APSF의 발전과 아시아 물류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APSF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오후에는 엄재균 교수 주관으로 ASIA ISO/TC51(세계표준화기구 파렛트 전문위원회) Bangkok2014 회의도 열렸다.

이튿날인 9월 26일에는 태국주관사인 TNSC(Thai national Shippers' Council)가 섭외한 Superware그룹을 방문하여 다양한 플라스틱제품 제조와 파렛트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방콕수완나품공항 카고터미널을 방문하여 다양한 시설과 운영프로세스를 견학하였다.

◆ 제11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개최

사전 행사로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 진행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 유일의 파렛트 및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물류발전의 주요 핵심 행사로 올해로 벌써 11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 등에서 후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국내 산업물류의 혁신과 표준 파렛트·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이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상은 파렛트 부문과 컨테이너이너 부문 그리고 공로상(개인)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표창(생산/사용), 기술표준원장 표창(생산/사용),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상(생산/사용) 등으로 시상이 주어진다.

올해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11월 14(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되며 금번 행사에서는 좀 더 특별한 사전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 발표로 파렛트 및 컨테이너를 이용한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대한민국의 선진 물류시스템의 미래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유닛로드 창의성 공모전”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응모기한을 마쳤으며 공모전의 주된 주제는 국가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인 T-11형과 T-12형의 복수규격 국가표준파렛트 채택에 따른 새로운 유닛로드시스템의 구축과 보급, 확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부문에 있어 유닛로드 표준화 생산성 향상 부문(일반부) 대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장려상 2명(팀), 그리고 유닛로드 표준화 생산성 향상 부문(학생부) 대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장려상 2명(팀)을 선별하여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